

NEWSLETTER

Reliable Companion
for Global Public-Private Partnership Business



2024 겨울호 | Vol.24



Urban Development



Infrastructure



Plant



KIND, 카타르 Faciltiy E 담수 발전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

P.2

KIND, 김복환 3대 신임 사장 취임

P.3

KIND, 한국해양진흥공사와 MOU 체결

P.4

KIND,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MOU 체결

P.5



KIND,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발전 플랜트 건설 사업 수주

한국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는 11월 25일 카타르 도하에서 KIND를 포함한 컨소시엄사와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발전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카타르 Facility E 담수 발전 사업은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약 18km 떨어진 Ras Abu Fontas 지역에 2.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일 50만 톤 규모의 담수 플랜트를 건설하고 이를 2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발주처는 카타르 수전력청(Kahramaa)으로, KIND는 국제 경쟁 입찰을 통해 이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됐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37억달러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로, 사업 개발, 금융, 시공 등 전 과정에 우리 기업이 참여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업이다. KIND는 이번 수주를 위해 공공기관(KIND, 남부발전) - 금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민간기업(삼성물산)으로 구성된 '원팀코리아'를 조직하여 투자, 금융조달, EPC(설계·조달·시공)에서 해외 수주를 이끌었다.

특히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주처와 공동 사업주 등 주요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했다. 또한, 발전 입찰 사업 수행 시 수출입은행 및 산업은행과 협업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 조달 네트워크를 형성, 대규모 사업비의 절반에 해당하는 재원을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성공적으로 조달하는 성과를 거뒀다.

카타르 Facility E 사업의 대규모 수주는 2024년 해외건설 분야가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세 번째로 수출·수주 누적 금액 1조 불을 달성하는 데 기여했다. 김복환 KIND 사장은 "이번 사업은 전·후방 산업에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 고부가가치 투자개발 사업으로,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업을 통한 개발-건설-금융의 원팀코리아 구성이 성공의 핵심 요소였다"며, "이번 수주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KIND-한국무역보험공사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는 11월 27일 K-SURE 본사에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및 녹색 산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으로 글로벌 사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국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해외 녹색산업 프로젝트 수주 지원 등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신시장·산업의 정책적 지원 확대 수요에 효과적으로 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복환 KIND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해외투자개발사업 지원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를 다지는 것은 물론 민간 산업의 해외사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말했다.



KIND의 새로운 시작, 김복환 3대 사장 취임

2024년 11월 11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새로운 도약을 다시금 시작하였다. 김복환 사장이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며, 공기업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중추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비전을 제시하였다.

김복환 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KIND가 단순한 금융지원 기관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투자개발사업을 선도하는 리더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KIND의 공공 기능 강화를 위해 자본금 확충과 G2G 협력 역량을 키워 대규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러한 목표는 튀르키예 고속도로와 카타르 담수 발전 플랜트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발판 삼아 실현될 것이라고 제시하였다.

조직 내부 차원에서 김복환 사장은 “KIND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회사를 대표하며, 개개인의 노력과 헌신이 조직의 경쟁력을 만든다”고 언급하며, 직원들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사장실은 누구나 출입 가능한 개방형 소통 공간으로 운영하며, 모든 직원의 아이디어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복환 사장은 해외 건설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PPP 사업을 이끌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불합리한 규정과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민과 정부의 기대를 충족하며 대한민국 해외건설 경쟁력을 선도하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복환 사장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모든 도전을 극복하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 건설 경쟁력을 이끄는 최고의 공기업으로 성장하자”고 당부하였다. 이로써 KIND의 임직원 모두가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여 기관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KIND-이천시-한국무역보험공사-SK하이닉스 간 업무협약 체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12월 27일 이천시청에서 이천시-한국무역보험공사-SK하이닉스와 중소·중견기업 해외 진출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이천시 내 소재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KIND는 이천시가 추천하는 유망 중소·중견기업의 국외 시설투자 및 건설 시 구조화 자문을 지원하고 공동 투자를 검토 하는 등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김복환 KIND 사장은 “이번 협약이 지방정부-공공기관-민간기업이 각자의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공동으로 지원하고 첨단기술 및 미래산업육성을 이끌어가는 시작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 한-폴란드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는 11월 15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개최된 한-폴 인프라 및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포럼(Korea-Poland-Ukraine Infrastructure & Reconstruction Forum)에 참가했다. 이번 포럼에는 국토교통부 차관, 주폴란드 대사, KIND 사장, 유관기관, 기업인 등 한국 측 약 80명이 참석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 주지사, 크리브리흐시 부시장, 유관기관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폴란드에서는 폴란드-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기금지역 정책부 차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하여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서 총 150여 명이 함께 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재건 관련 고위급 회의를 열어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실행가능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과 폴란드 간 인프라 기술 협력을 진전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재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삼각 협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어 논의가 이루어졌다.

KIND는 특히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전략에 대한 발표와 함께 UKRNafta, Naftogaz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현지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고 재건에 기여하겠다는 상호 의지를 강화하였다.

KIND는 이번 포럼을 통해 대한민국의 인프라 역량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과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폴란드 및 우크라이나 정부·기업과의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여 상호 발전에 기여할 방침이다.



KIND,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해외 항만·물류사업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는 12월 13일 IFC Forum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양사 간 항만·물류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지난해 공사법 개정 이후, 향후 5년간 3.5조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항만·물류 인프라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김복환 KIND 사장은 “본 양해각서를 계기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양 기관이 협력하여 핵심 거점에 항만과 물류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MOU는 양 기관이 사업 정보를 상시 공유하고, 유망 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을 검토하며,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출자 및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협력 범위를 담은 MOU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실제로 양 기관은 헝가리 등 동유럽 물류 사업 공동투자를 논의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형 사업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KIND,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조성사업 MOU 체결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는 2024년 11월 25일 베트남 박닌성 킨박문화센터에서 박닌성 동남 신도시 민관 협의체 구성을 위한 예비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이번 MOU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임석 하에 KIND, LH 등 7개 공공기관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등 16개 민간기업이 베트남 박닌성 인민위원회에서 시행 예정인 동남 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정보교류 및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체결한 MOU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권 확보를 위한 공동노력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닌성 동남신도시는 2023년 6월 박닌성 등 베트남 5개 지방성과 “도시성장 동반자 프로그램 UGPP(Urban Growth Partnership Program)”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발굴된 사업으로 하노이 동북쪽과 인접한 박닌성 꾸에보현 일원에 판교신도시와 비슷한 8km² 넓이에 4만 9천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남 신도시 사업이 이른 시일 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가능한 많은 기업이 참여해 이를 토대로 해외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것”을 요청하며 ‘K-신도시’ 수출의 마중물을 붓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KIND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발맞춰 2024년 4월 F/S 지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MOU를 계기로 향후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KIND, 해외 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 참여 확대... 총 4건 지원 추진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가 해외 공항 개발 및 운영 사업 추진을 확대하며 글로벌 항공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IND는 우리기업과 함께 동유럽, CIS, 중동, 동남아 지역 입찰 사업 총 4건을 지원 또는 참여한다. 개별 사업 협력 및 공동 추진을 위해 KIND는 각 기관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KIND는 내년 상반기 입찰서 제출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참여 투자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최근 해외 공항 PPP시장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총 40건이 투자되었다. 주로 기존 공항을 확장 및 개선하는 브라운필드형 사업 위주로, 글로벌 건설사들이 공항 투자개발형 사업에 적극 진출함에 따라 해외에서의 공항사업 매출과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해외 공항 사업의 경우 민간운영자가 공항 수요 및 수익의 위험 부담을 가진다. 반면에 항공노선 신규 유치를 통한 여객수요 증대, 비항공수익(면세점, 식당 등) 증대 등 사업자 재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번 KIND의 입찰사업 참여 및 지원은 우리기업이 해외 항공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향후 성공적인 사업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속 가능한 미래에 한 걸음 가까이 ... 환경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14001) 인증 획득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는 2024년 12월 13일, 한국표준협회(KSA)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ISO 14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환경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표준으로, KIND의 환경경영전략 및 운영 전반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을 받게 되었다. 이번 인증 획득으로 KIND는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경영의 핵심가치로 삼고 체계적인 환경경영체계를 구축해 온 성과를 인정받게 됐다.



이와 더불어, KIND는 최근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인 서스틴베스트가 실시한 ESG 경영 진단에서 종합 성과 “A”등급을 획득하여 환경·사회·지배구조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이는 그간 KIND가 친환경 경영과 사회적 책임 경영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이다.

김복환 KIND 사장은 “KIND가 한국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 인증을 획득한 것과 서스틴베스트로부터 ESG 경영 성과를 인정받은 것은 공사의 지속 가능한 경영 체계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업무 체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KIND는 탄소 배출 저감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해외 인프라·도시개발 사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KIND는 이번 인증 획득을 발판으로 환경경영 분야의 지속적인 혁신과 친환경 분야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K-City Network 베트남 하남성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중간보고회 개최

지난 2024년 12월 23일,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K-City Network 베트남 하남성 홍강 주변 지역 스마트시티 개발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하남성 인민위원회 Nguyen Anh Chuc 부위원장, So Xay Doan 건설국 부국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중간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남성은 하노이 남측에 위치한 관문 도시로, 다수의 산업단지와 첨단 기술단지 조성이 예정된 중요한 거점이다. 이번 K-City Network 사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해 자족형 스마트 시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한다.

KIND는 지난 9월 사업 착수 이후 대상지 현황 및 하노이·하남성의 부동산 시장과 주거 수요를 분석해 개발 계획에 반영했으며, 중간보고회에서는 홍강과 연계된 개발 컨셉과 3개의 구상 안을 제시했다. 하남성 인민위원회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과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점을 높이 평가했으며,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위해 핫라인 운영을 제안했다.

KIND는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이번 하남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후속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2024/25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인도네시아 착수보고회 및 고위급 면담 실시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사장 김복환)는 12월 19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경제혁신파트너십프로그램(EIPP) 5차년도 착수보고회 및 고위급 면담을 실시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각 과업 연구 방향과 EIPP 5차년도 추진 관련 고위급 면담 시간을 가졌다.

착수보고회 공통세션은 KIND 정기철 본부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가개발기획부(Bappenas) Teni Widuriyanti 차관의 화답이 있었으며, 5차년도 각 사업별 연구 방향에 대한 요약 보고회를 진행했다. 개별 세션에서는 각 과업별로 5차년도 EIPP 세부과제에 대한 과업 내용에 대해 Bappenas 내 담당국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추가 개선 사항을 도출하였다.

KIND는 이번 착수보고회 및 고위급 면담을 통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인도네시아 측과 사업 추진 협력을 다지는 등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인도네시아 5차년도 과업은 25년 2월 현장조사, 6월 초청연수, 10월 최종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4년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 신규사업 9건 선정

(2024년 4분기 기준)



*2024년 누적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 선정 건수 (총 20건)

KIND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 받아 수행 중인 타당성조사(F/S)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4분기에 총 9건의 사업을 신규로 선정하였다. 2024년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베트남 바이오매스 연료전환 Retrofit 사업, 남호주 그린수소 생산사업, Abha 국제공항 개발/운영 PPP사업 등을 포함하여 총 17건의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F/S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사업 F/S 3건도 지원 중에 있다.

2024년 12월 3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과 KIND가 주최한 글로벌 인프라 수주지원 협력 컨퍼런스를 통해, 타당성조사팀 유용필 팀장은 시행 중인 타당성조사 지원사업 제도를 우리기업에게 소개하면서 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F/S와 함께 국토교통 국제감축사업 F/S지원제도를 설명하고 2025년에도 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KIND는 2024년 제2차 국토교통분야 국제감축 사업 F/S 지원 대상 사업을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 중(~'25.1.16.)에 있다. 해당 공모를 통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과 더불어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제1차 해외인프라 도시개발사업 F/S 컨설팅지원 대상사업도 함께 공모 중(~2.5.)에 있다.